

						1-E-2
제목	국문	질 향상 활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문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quality improvement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gree of quality improvement performance				
저 자 및 소속	국문	이선희, 최귀선, 강혜영 ¹ , 조우현 ² , 채유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Sun Hee Lee, Kui-Son Choi, Hye-Young Kang ¹ , Woo-Hyun Cho ² , Yoo Mi Cha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분야	보건관리 [의료의질]	발표자	최귀선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QI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QI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QI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QI 활동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p> <p>2. 방법</p> <p>이 연구에서는 Shortell 등(1995)이 제시한 모형을 기초로 QI 성과를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 하고, QI 활성화 정도를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 성과 및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QI 기본원칙의 준수정도, 병원장 참여정도, QI 활동예산, QI 사업기간, 병상규모)을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p> <p>조사대상병원은 QI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400 병상 이상의 표준화심사 대상병원(총 108 개 병원)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QI 전담부서가 있는 병원의 경우 QI 전담자(전담자가 1 인 이상인 경우 전담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로 하였으며, 전담자가 없는 경우에는 QI 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표준화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자기기입식 우편설문조사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은 2000 년 9 월 15 일부터 2000 년 10 월 30 일까지 였다. 설문 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기 전에 QI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하여 설문 의 목적과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고 반송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최종 수거된 설문지는 총 108 개 병원 가운데 79 개 병원이 응답하여 73.1%의 응답률을 보였다. 최종분석은 이들 79 병원 가운데 QI 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 69 개 병원에서 주요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4개 병원을 제외한 65 개 병원, 115 명 응답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단 1 개 병원에서 2 명 이상의 QI 담당자가 설문 에 응답한 경우 병원의 구조적 특성(병상규모, QI 사업기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응답자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p> <p>3. 결과</p> <p>QI 성과를 의료기관의 병상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병상규모가 클수록 QI 활동 성과가</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QI 활동을 통하여 고객만족도와 진료절차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이 많았으며, 특히 병상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QI 활동을 통하여 진료절차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의료기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F=4.83, p<0.05$)

한편, QI 활성화 정도와 QI 기본원칙의 실천정도, 병원장의 참여, QI 활동예산 등이 QI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QI 기본원칙에 대한 실천정도가 높을수록, QI 활동이 활성화 될수록 QI 성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병원장의 참여정도와 QI 활동 예산, QI 사업기간, 병상규모는 모두 QI 성과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QI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QI 활성화 정도가 높을수록 QI 성과가 높았으며($\beta_{12}=0.5967$), QI 기본원칙에 부합할수록 QI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_{13}=0.3333$). 한편, 매개변수인 QI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QI 기본원칙과 병원장의 참여정도로 나타났다($\beta_{23}=0.4028, \beta_{24}=0.1954$). 그러나 QI 활동예산과 QI 사업기간, 병상규모 등은 QI 성과와 활성화 정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연구의 외생변수들이 최종결과변수인 QI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보면, QI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QI 활성화 정도로 QI 활성화 정도가 1 점 증가하면 그로 인한 성과는 약 0.5967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은 QI 기본원칙에의 부합 정도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고려할 때 QI 성과에 약 0.5736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QI 활동을 통하여 비용절감이나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QI 활동의 기본개념과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QI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4. 고찰

이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에서 QI 활성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QI 활동이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QI 활성화 정도와 성과를 모두 동일한 시점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QI 사업기간이 대부분 5 년 미만으로 QI 활동이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짧은 기간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QI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에는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는 각 병원에 종사하는 QI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QI 담당직원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로 보고자 했던 QI 성과의 경우 객관적 자료나 지표에 의해 측정된 것이 아니라 QI 담당자가 인지하는 성과(perceived outcomes)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QI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씀 볼드리지 항목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QI 성과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많은 연구에 의해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측정치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